

<막장 정치 다크 '부역자들'을 보고...>

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었는데...
이제 싫어졌습니다. 미워졌습니다.
이제 고향도 싫어지려 합니다.
서글픕니다.
어떻게 새우고 어떻게 지킨 우리조국인데...

아니 미워진 것은 조국이 아니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
김정이보다도 그 밑에 못 들어가 안달 대는 남쪽의 종북자들 더 밉습니다.
종북자들 보다 더 미운 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 한국사람들의 저질 민도입니다.
공산주의는 실패한 사상으로써 이 지구상에서 이미 사라진 사상인데도 아직도 모르는, 이 지구상에서 가장 처참한 지옥이 북조선이라는 것 온 천하 초등학교
들도 다 아는데 그 밑에 들어가 김정은 알현하려 경쟁하는 정치인들, 대통령
출마자들이라는 자들 과거 어떤 인간이라는 것 초등학교도 다 아는데 아직도
정견발표라는 것에 현혹 되는 국민들...
생각하는 법 가르치지 않고 암기하여 시험점수만 따도록 된 한국 교육제도의
결과인 것 같습니다.

한국인 실망스러워졌습니다.
어제 우연히 you tube 에서 '**막장 정치 다크 "부역자들"**을 본 이후부터 입니다.
이젠 걱정도 안 하고 신경도 쓰지 않으렵니다.
때리시던 어루만지시던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렵니다.

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이제 '국민들이 원하는 대로' 그 세상, '빨갱이 세상'
되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.
우리민족의 먼 장래를 위해서는 오히려 그 맛과 경험 필요할지도 모릅니다.
그러나 하나님, 너무 길게는 말고 10 년은 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.

그런데, 아...!
차라리 전쟁이 난다면 몇 만이나 몇 십만 명이면 되지만 그 세상이 되면 1,300
만명이 학살 되리라고 예상들 하는데...
세계 공산혁명사에 의하면 학살의 제 일차 대상이 지금의 종북자들 이라는 것
알기나 하는지...
공산주의자들 너무 머리 좋습니다.

해방 이후 70 년간을 치밀하고 꾸준하게 성공적으로 공작 해온 것을 보십시오. '불평불만' 이나 '배신' 은 그 사람의 personality 라는 것 그들 너무 잘 압니다. 즉 '불만'은 부족한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닌 그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. 그래서 현 대한민국 체제에 배신 하는 사람들은 빨갱이세상이 되어도 배신할 자들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기에 가장 먼저 처치하는 것이 공산혁명의 역사라는 것 지금 중복자들 알고나 있는지 말입니다.

이것이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당이 정권잡고 하는 '정치' 이야기입니까? 목숨이 죽고 사는 '생명' 에 관한 얘기입니다. 여러분, 어느 당이 또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상관 없지만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. 그 사상이나 그 사람들은 '좀 더 나쁜' 사람이 아닌 정치라는 탈을 쓴 사탄의 세력입니다. '진화론'이 과학이라는 탈을 쓴 악령의 사상이듯 말입니다.

저 지금 이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. 제 어머니 친정식구 8 명을 하루아침에 어린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대창으로 찢러 죽인 것이 공산당입니다. 세 조카들 대려다가 우리들과 같이 기르며 평생 한에 맺혀 계셨던 어머니를 어렸을 때부터 보며 자랐습니다. 세계 10 위까지 올려 놓은 자랑스런 우리 조국 이런 비극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. 얼마 전에 만났던 탈북자 젊은이들이 확실한 증거요 증인들이지 않습니까?

다음달 5 월 15 일에 김평우 변호사님 이곳에 오실 것입니다. 국제적으로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유치한 탄핵 얘기 더 들으려는 것 아닙니다. 어느 편에 정치적 힘 실어주자는 것도 아닙니다.

그래도 최근 고국분위기 보고 느끼고 오신 같은 교포 분으로부터 우리 이제 비록 늙었고 힘도 없지만 고국을 위해 마지 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, 아무래도 밖을 보는 시야 부족한 고국의 친지들에게 미주 교포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듣고 싶어 모시려는 것입니다.

그 때는 이미 대통령 선거도 끝난 후입니다. 그러기에 정치 얘기가 아닌 고국을 위해서 "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?" 라는 주제의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.

4-19-17 김 홍 식 드림.